



NEW SPIRIT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 곳에 정착을 시작한 것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3년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날씨에도 많이 익숙해져서 땀 흘리는 것이 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동서남북도 구분 할 수 있어서 지도에도 나타나 있지 않는 길도 잘 찾아 다니고 있고,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먹거리도 구분 할 수 있어서, 이제는 이 곳 생활이 점점 자연스러워 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곳 풍토병과 더불어 여러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동료 선교사들이 많은데, 저희들은 오늘 날까지 큰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제 주위에는 이 곳에서 7년 동안이나 사역을 하면서도 사역의 방향을 잡지 못하여 어려워 하다가, 최근에서야 이곳에 처음 도착한 마음으로 현지 언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이곳에 도착한 날 부터 지금까지 나름대로 일관된 사역을 하면서 지경을 넓힐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와 후원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믿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때때로 제 자신에게 매우 근본적인 우매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세상의 중심과 동 떨어진 이런 열악한 곳에 관심이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곳은 격변하는 세상의 중심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또한 세상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무런 동력이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변두리 중에 변두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영영 잊혀져도 별로 아쉬울 것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모든 이들의 관심과 같이 세계의 모든 경제와 정치와 종교의 흐름을 주도하는 특정한 인물이나 지역에 있다면, 저희들은 하나님의 주목도 받을 수 없는 이곳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하는 궁금증이 들 때가 있습니다.

거의 20여년 전 유학생 시절에 일리노이주에 있는 Wheaton College에서 유학생들을 위한 집회가 있어서, 뉴욕에서부터 어렵게 운전을 하고 가서 집회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상당히 잘 알려진 분들이 초빙이 되어 집회를 인도 하여서 저를 포함하여 정말 많은 유학생들이 은혜를 받고, 큰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었기에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집회의 화두는 이은상 시인의 '고지가 바로 저긴데'라는 시를 기억나게 하는 '고지를 선점하라' 이었습니다. 집회에 참석하는 대상이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크리스천으로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확인하는 집회 였습니다. 집회의 요지는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세상의 중심에 서서 (고지를 선점해서), 그 분야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 영향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꽤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그 내용이 뒤 늦게 다시 생각이 나는 것은, 제가 이제는 고지를 선점해야 할 세상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세상의 변두리에 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시기 까지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은 과연 세상의 어디에 있을까? 전지 전능하시고 무소 부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지만, 하나님의 관심에 경중이 있다면, 이곳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분명코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만한 요소가 없어 보입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둘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 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눅 15:4-7)

Inho & Yeonji Park

Faith Academy Mindanao / PO Box 81305, 8000 Davao City, Philippines

inho_park@wycliffe.org ; yeonji_park@wycliffe.org

많이 익숙한 말씀이지만, 뒤 늦게 이곳에 와서야 품 안에 있는 양 아흔 아홉 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양 한마리를 찾아 나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교가 과연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제 겨우 선교사 생활 3년을 맞이하는 왕초보인 제가 정의를 한다면 너무나 싱겁게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의 관심은 소위 세상의 경제와 정치와 학문이 집중된 곳과 특별한 인물에 있으며, 또한 세상의 모든 이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하여 총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뜻 밖에도 아무도 관심이 없는 변방 이곳에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잃어버린 양 한마리를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히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중심과는 비록 많이 떨어져 있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잃어 버린 양을 찾는 그 곳이 바로 선교지이고, 그 **선교지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된 하나님의 중심지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된 그 곳이 잃어버린 양이 있는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 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때는 매력적인 요소가 별로 보이지 않는 변방에 와서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잃어버린 양에게 있음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눅 19:10)

2년전 처음 해변 교회를 방문 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당시 이곳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저희로서는 모든 것이 새롭고, 놀랍고, 기억 할 만한 일들이 이어서, 거의 습관적으로 소형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필요할 때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해변 마을에 와서도 자연스럽게 그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는데, 주민 중의 한 분이 의미 심장하게 말하기를 지난번 선교사들도 사진을 많이 찍고 간 이후에 다시 찾아 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얼마 동안이나 이곳에 머무를 것이냐고 저희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죄송한 마음에 한 동안 카메라를 들고 다니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다양한 선교사들이 이곳 낙후된 지역을 방문하고 있고, 또한 이들 또한 이미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선교 사역의 혜택(?)을 경험하고, 들은 이들이 있어서, 선교사와 사역의 생리를 나름대로 짐작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때에 단기 선교팀들이 많이 오는 지도 알고,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선교 물품을 받는 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종파나 봉사 단체의 구분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모든 선교 행사(?)들이 썰물처럼 이곳을 빠져 나가면, 마치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변화없는 이들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쉽지만 열매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당연히 저의 주된 관심과 기도는 '어떻게 해야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께 돌릴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선교 사례들을 찾아 보기도 하고, 조언도 듣고, 시행 착오를 범하며 적용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 중에 방법을 찾습니다. 선교의 열매를 눈에 보이는 숫자와 현지인들의 반응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말씀으로 늘 비추어 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된 이곳'에서 선교 3년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년차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

- **성령 충만을 위하여**
 - 성령 충만으로 사역을 감당하도록
 - 말씀으로 날마다 자라도록
- **IT 사역**
 - 지혜가 충만하도록
 - 동역하는 사역자들과 하나가 되도록
 - Computer System이 잘 운용되도록
- **Local 사역**
 -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로 섬기도록
 - 예배가 회복되고, 전도의 열매가 맺도록
 - 도서실 건립을 위하여
- **후원자**
 - 기도의 동역자가 채워 지도록
 - 후원금이 채워지도록
- **현지 생활**
 - 차량 구입을 위하여
 - 현지 언어 습득을 위하여
 -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 **자녀**
 - 믿음이 더욱 더 성숙해 지도록
 - 학업과 진학을 위하여
 -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 12:24)



해변에서 즐거운 놀이를 함께하며



토요 성경학교를 새롭게 시작한 동네의 어린이들



동생을 먼저 보살피는 어린 누나



언제나 즐거운 식사 시간



아이들과 구슬치기 놀이를 하며



아이들에게 노래와 율동을 가르치며

NEW SPIRIT FAMILY

	이름	Vladimen Dayon		이름	Rhea Mea Suaning
	별명	Dodong		별명	Raming
	성별	남		성별	여
	생년월일	Apr. 12, 1997		생년월일	Mar. 14, 2000
	학년	9		학년	4
	부모 직업	자전거 운전		부모 직업	엄마-가정부
	형제 수	5		형제 수	1

자기 소개 및 기도 제목

1. 학교를 졸업하여 호텔 메니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2. 구슬 치기와 농구를 하며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3. 기도 제목
 - 매일 먹을 수 있도록
 - 아빠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 학교 공부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자기 소개 및 기도 제목

1. 가게에서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2. 기도 제목
 - 엄마가 건강하도록
 - 아픈 부분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 착한 아이가 되도록
 - 집에 쌀이 많도록

학생 소개

저희들이 오면 영어로 미리 준비한 질문을 할 정도로 영어를 잘하기 위해 무척 노력하는 아이입니다. 성경 암송과 저널도 다른 아이들과 비교가 될 정도로 영어로만 합니다. 빨리 커서 이곳을 떠나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랍니다.

다섯 형제의 장남으로서 물을 길어 오는 일과 땀감을 준비하는 것은 일도 말아 하지만, 동생들과 함께 늘 교회에 나오는 모습이 믿음직스럽습니다.

학생 소개

예배가 시작하기 한 시간 전에 어머니와 함께 교회와 와서 모든 이들을 기다리는 것과 예배와 친교 이후의 남은 음식들을 꼭 집에 가지고 가는 것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또래의 아이들보다 지능이 약간 모자라기 때문에 친구들이 많지는 않지만, 항상 웃는 밝은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채워주심이 꼭 필요한 가정의 아이입니다.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